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 현황 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주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 현황 조사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주 은

# 인 준 서

임주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현 경 실     (인)

심 사 위 원     김 명 숙     (인)

심 사 위 원     김 미 숙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 그리고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국악교육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 고등학교 『미래엔』,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음악교과서 전체 악곡 중 국악 악곡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 40명에게 국악교육 실태에 대해 설문하여 현 교육현장의 현황 및 국악 연수 활용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과 국악교육 현황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 고등학교 『미래엔』,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국악비중은 『미래엔』 중학교 1이 34.67%, 중학교 2가 37.17%, 고등학교가 29.32%이며, 『음악과 생활』 중학교 1이 36.92%, 중학교 2가 36.48%, 고등학교가 28.39%의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에 대한 응답에서는 40명 중 27명(67.5%)이 국악수업보다 양악수업 더 많이 교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악 수업 지도능력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40명 중 24명(60%)이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셋째,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명 중 31명(77.5%)의 교사가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교육해야한다고 답하였다.

넷째, 국악 연수에 참여한 16명의 교사 중 연수의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현장에 바로 접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가 10명(55%)으로 나타나 국악 연수가 국악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는 대체로 국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악교육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확대되길 바란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4.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1. 국악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4
2.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 변천사 .....	5
3. 선행연구 .....	1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5
1. 연구 대상 .....	15
2. 연구 절차 .....	15
3. 설문지 개발 .....	16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9
1. 중, 고등 음악교과서 국악 비중 분석 .....	19
2. 국악교육 실태조사 분석 .....	30
3. 요약 및 논의 .....	46
V. 결론 및 논의 .....	50
1. 결론 .....	50
2. 제언 .....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 .....	15
<표 2> 연구기간 .....	16
<표 3> 설문지 제작절차 .....	17
<표 4> 설문 내용 구성 .....	18
<표 5> 『미래엔』 음악교과서 국악의 비중 .....	20
<표 6> 『음악과 생활』 음악교과서 국악의 비중 .....	20
<표 7>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1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1
<표 8>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2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2
<표 9> 『미래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3
<표 10> 『음악과 생활』 중학교1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4
<표 11> 『음악과 생활』 중학교2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5
<표 12>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	25
<표 13> 『미래엔』의 중, 고등 음악교과서 종합 분석 .....	27
<표 14> 『음악과 생활』의 중, 고등 음악교과서 종합 분석 .....	29
<표 15> 출판사별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기 .....	30
<표 16> A형 설문지 : 기초조사 .....	31
<표 17> B형 설문지 : 기초조사 .....	31
<표 18> A형 설문지 :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 .....	32
<표 19> A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 .....	32
<표 20> A형 설문지 :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	33
<표 21> A형 설문지 : 다룰 줄 아는 국악기 .....	33
<표 22> A형 설문지 : 국악지도의 내용 .....	34
<표 23> A형 설문지 :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정도 ..	34
<표 24> A형 설문지 :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34
<표 25> A형 설문지 :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 .....	35
<표 26>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받은 횟수 .....	35
<표 27>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주최한 기관 .....	36

<표 28>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37
<표 29>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참여한 뒤 달라진 점 .....	37
<표 30>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 .....	37
<표 31> A형 설문지 :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8
<표 32>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 .....	39
<표 33> A형 설문지 :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 ·	39
<표 34> A형 설문지 : 국악교육 발전 과제에 관한의 교사 응답 .....	39
<표 35> B형 설문지 :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 .....	40
<표 36> B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 .....	40
<표 37> B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	41
<표 38> B형 설문지 : 다룰 줄 아는 국악기 .....	41
<표 39> B형 설문지 : 국악지도 내용 .....	42
<표 40> B형 설문지 :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	42
<표 41> B형 설문지 :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42
<표 42> B형 설문지 : 현재 선생님들께 주어지는 국악 연수 기회에 대한 생각 ·	43
<표 43> B형 설문지 :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43
<표 44> B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 .....	44
<표 45> B형 설문지 :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	44
<표 46> B형 설문지 :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	45
<표 47> B형 설문지 : 국악교육 발전 과제에 관한의 교사 응답 .....	4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양의 문화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음악인 국악은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만큼 오늘날까지 온전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조적으로 국악을 계승·발전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표현영역, 감상영역, 생활화영역 등 다양한 영역의 음악 교육을 통해 정체성 형성이 도모하게 되며, 더 나아가 감정표현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 나라의 모국어와 있듯이 음악에도 각 나라들의 음악 언어인 음악적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음악적 모국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서를 담은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우리 민족의 언어로 된 국악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국악교육을 확장하고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지닌 국악교육의 현황과 교사의 국악연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선행 연구<sup>1)</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

1) 이진아 (2008).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명지대학교  
임유정 (2016).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실태 및 인식조사 :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선 (2012). 초, 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오미선 (2010).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이지현 (2008).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따른 교사들의 수업 개선 여부와 국악연수를 통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는 달라진 교육현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 그리고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국악교육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직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 고등 음악교과서의 국악영역 비중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의 비중 및 지도 능력은 어떠한가?

셋째, 국악교육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현직 교사들의 국악 연수가 국악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 중 국악의 비중이 높은 두 개의 출판사의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악교육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 교육현장의 실태 조사를 하여 국악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교과서의 분석 기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자가 동일한 교과서 중 국악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선행연구에 의해 분석된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정하였으며<sup>2)</sup>, 현 교육현장의 실태 조사를 위

---

오미선 (2010).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2) 변선호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국악 내용 연구, 상명대학교

한 설문 대상은 A연수에 참여한 중등 음악교사 40명에게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 고등학교 『미래엔』,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음악교과서 전체 악곡 중 국악 악곡의 비율을 분석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악 내용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둘째, 중등 음악교사들에게 국악교육 실태에 대해 설문하여 현 교육현장의 현황 및 국악 연수 활용도에 대해 분석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A연수에 참가한 전국의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국악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의 변천사, 중·고등 음악 교과서 분석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악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으로 반만 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정서를 품고 있는 음악이다. 우리 민족의 삶 곳곳에서 살아 온 음악이지만,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음악을 교육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국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학교에서 국악교육이 왜 필요한지 교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인식할 때 국악교육의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국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심미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up>3)</sup>

첫째, 국악은 선율의 미학이다. 국악은 선율을 중시하는 음악으로 선율을 장식하는 수많은 기법을 지니고 있다. 국악에는 다양한 선법과 시김새가 있다. 또한 같은 주선율을 연주할 때도 악기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표현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합주음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악기별로 비교해보면 주선율은 동일하지만, 각 악기별로 독특한 연주법을 발휘하면서 개별적인 음악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서로 같은 듯 하며 서로 구별되는’ 합주 속에서 존재하는 화음을 감지할 수 있다.

둘째, 장단의 미학이다. 국악은 ‘최고 푸는 음악’으로 국악의 장단 구조는 ‘열고, 달고, 맺고, 푸는’ 짜임새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산조에서 장단을 점점 빠르게 몰고 가다가 끝에 풀어주는 가락이 나오고, 풍물이나 사물에서도

3)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2009). 국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pp5-6

장단을 몰아치다가 뒤에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존 듀이는 예술의 본질이 ‘긴장과 이완’의 구조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곧 인간 삶의 본질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듯 국악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인간 삶의 심리적 흐름을 본질적으로 깊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즉흥성 및 창의성이다. 국악 중에 민속악은 ‘악보’ 보다는 ‘사람’에 의존하면서 전승되어 왔다. 악보가 없기에 명인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그 수고로움은 훨씬 더 크지만, 명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악보가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창의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국악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즉흥성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즉흥성이 아니라, 명인의 경지에서 그들이 터득한 ‘어법’ 안의 창의적인 즉흥성을 말한다. 국악의 일부 음악에서 ‘악보가 없음’은 더 이상 제한이 아니라 창조적 발전의 출구가 되어 왔음을 알게 될 때 국악은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들리며,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넷째, 독특한 음색의 세계이다. 국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돌, 대나무, 흙, 나무, 쇠, 가죽으로 만든 악기 등 팔음을 구비하여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음색의 소리를 낸다. 지구상에 수많은 현악기들이 있지만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기이다. 또한 지구상에 수많은 관악기들이 있지만, ‘대금’이라는 악기 역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기이다. 이처럼 국악은 독특한 음색으로 만들어지는 고유한 음악이다.

이와 같은 심미적 관점을 교사가 바르게 인식하고, 국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국악의 미가 발휘될 것이다.

## 2.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 변천사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포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공포된 1955년 이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60년간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이 장에서는 제 1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등음악 국악교육에 한정하여 정리하였다.

#### 가. 제 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1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음악 교육의 일반 목표에 따라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등의 습득으로 대별한다.”이다.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악교육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감상영역에서 “각국의 민요와 민족 음악, 민족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는 내용과 3학년 지도목표에서 “우리나라 민족 악기, 국악기, 아악기의 음색의 특징과 그 음악을 감상한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와 외국 민요도 감상한다.”는 국악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4)</sup>

#### 나. 제 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2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일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이며 이 외의 3가지 목표를 더 지닌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도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악교육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가창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전 가창 교재의 30% 이상)”와 감상영역에서 “범창, 범주 및 상호 연주의 감상과 그 평가, 한국풍의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 감상,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고상하고 유명한 음악(민요 포함)의 감상 및 이해, 장구, 북,

---

4) 1차 중학교 음악과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징, 팽과리, 편경, 가야금, 양금, 통소, 태평소 등의 국악기에 대한 이해 및 그 음악의 감상”과 같은 국악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차 교육과정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악교육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 다. 제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3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일반 목표는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며 이 외의 3가지 목표를 더 지닌다. 제 3차 교육과정도 국악교육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가창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래(민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래를 50%이상 부른다.)”와 “민족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기악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리듬악기를 세련되게 연주한다.” 감상영역에서 “우리나라 음악과 서양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 감상 한다” 와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감상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 2차 교육과정에서 가창영역의 노래가 30% 이상인 것에 반하여 50%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sup>6)</sup>

#### 라. 제 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이다. 제 4차 교육과정의 각 학년별 내용에서는 국악교육에 대해 담고 있지 않지만, 지도사항 (나)에서 “전통 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5) 2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1963.

6) 3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일,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 등, 모든 학습 활동 속에서 전통 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 3차 교육과정보다 국악교육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up>7)</sup>

#### 마. 제 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로 제 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와 동일하다. 각 학년의 감상영역에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감, 이해하기”와 “민요, 구군악,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감상하기”라는 국악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도사항에 “전통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4차 교육과정에 비해 국악교육에 대한 언급이 조금 구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 바.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6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과 유사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이다. 내용체계의 감상영역에 “전통가곡, 대취타, 단가, 잡가, 산조, 판소리, 범패, 연례악 등”을 추가하여 국악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악영역에서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장단 치기”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사항에서 “전통 음악의 학습은 이해, 표현, 감상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요는

7) 4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1981.

8) 5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87-7호.

시김새를 넣어 불러 보게 하며, 정간보를 보고 표현해 보도록 한다.”는 내용을 통해 국악교육이 구체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 사. 제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요음계와 시김새를 초등학교 때부터 습득”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가곡, 시조 등의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의 형식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 영역에서 특별한 국악교육의 세부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sup>10)</sup>

#### 아.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나타난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이다. 활동영역에서 “가곡, 민요 부르기와 시조의 초장, 창작 국악곡,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가곡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와 같은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해영역에서 “여러 가지 장단과 민요의 여러 조 음계, 악곡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담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의 영역별 국악교육의 세부 내용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완한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

9) 6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1992-11호

10) 7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1) 2007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자.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나타난 교육과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목표는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내용 영역이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뉘어 표현영역 1-2 (4)에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생활화영역 3-2 (1)에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국악교육에 대해 명시되어있다. 또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 “장단, 장단의 세,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 꼴,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시김새, 형식(연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한배의 변화 등” 국악이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영역별 지도에서도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국악기명과 국악 곡의 추임새, 정간보와 구음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발전된 국악교육 내용의 구체성으로 국악교육을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 차.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나타난 교육과정으로서 201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해 언급하여 음악을 통해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교육과정이다. 중학교 음악과 목표에는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라는 국악교육과 다

---

12)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개의 핵심역량 중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통해 국악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내용 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누었으며 감상영역 9음02-03에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와 생활화영역 9음03-03에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유사하며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도 동일하게 나타나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국악교육에 대해 크게 확대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sup>13)</sup>

### 3. 선행연구

중등 국악교육의 실태조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진아<sup>14)</sup>의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중등 국악교육에 대하여 9종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의 비중과 현직 교사로부터 국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국악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국악교육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연구하였던 논문으로 교과서의 국악의 비중이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구체적으로 확대된 것이 보이나, 양악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이 나타나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음악교사들이 국악교육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국악의 이론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음악

---

13)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4) 이진아 (2008).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명지대학교

교사 개인의 기량을 넓히는 데 부족하였고, 실질적인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에 국악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국악교육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준다.

임유정<sup>15)</sup>의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실태 및 인식조사 : 활동영역을 중심으로에서는 전국의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각 영역별 실태 및 인식조사를 연구하였다. 이는 음악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을 위한 국악연수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 연구가 음악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진아<sup>16)</sup>의 연구보다 8년 이후에 진행된 국악교육의 실태조사에서도 자신 있는 국악교육의 영역이 가창이며, 국악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영선<sup>17)</sup>의 초, 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은 초등 및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악연수에 관한 설문 실시하여 국악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악연수의 실질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교원 60명과 음악교과 중등교원 6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주 가능한 국악기와 국악 연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하였다. 초, 중등 교원은 모두 2가지 국악기가 연주 가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이 장구와 단소였다. 그리고 국악연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나, 국악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국악연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국악 연수에 참여하는 초, 중등 교원의 인원을 확보하고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국악

---

15) 임유정 (2016).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실태 및 인식조사 :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6) 이진아 (2008).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명지대학교

17) 조영선 (2012). 초, 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미선<sup>18)</sup>의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에서는 국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악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국악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국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은 1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400명과 음악교사 1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직 중인 교사들은 대부분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학생들은 국악교육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55%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학교에 가장 많이 비치된 국악기가 단소, 장구로 나타났다는데 가야금과 거문고 등의 값이 비싼 국악기는 거의 비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는 가야금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를 알더라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지현<sup>19)</sup>은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에서는 충청북도 충주 소재지 중학교에서 학습하는 국악교육과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국악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600명의 학생과 6명의 음악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교의 교사들은 모두 서양음악 전공이며, 오미선<sup>20)</sup> 연구와 동일하게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학생들의 열의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18) 오미선 (2010).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19) 이지현 (2008).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 오미선 (2010).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사들은 교육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국악 연수로 인하여 스스로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국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국악 실태와 관련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연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들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였다. 또한 국악교육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사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연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새로 개정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추가되면서 교사들의 수업 개선의 여부와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들을 심도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중등 교과서의 국악 분포도를 파악하고 국악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연구 대상, 연구 절차, 조사 도구, 자료 처리,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중등 교과서의 국악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저자가 출판한 『미래엔』 교과서와 『음악과 생활』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악 연수의 실태 및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A연수에 참여한 전국의 중, 고등 음악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교직경력, 대학전공에 따른 연구 대상자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

구분		집단	빈도	퍼센트(%)	합계
	성별	남	6	15	40
		여	34	85	
중등	교육경력별	5년 이하	11	27.5	
		6년-10년	12	30	
		11년-20년	12	30	
		21년 이상	5	12.5	
	대학전공별	양악	40	100	
		국악	0		

####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3개월간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연구주제 선정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시작으로 3월부터 4월 까지 이론적 배경을 연구한 뒤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2월부터 6월까지는 연구에 적합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1차 수정 및 보완의 작업을 거쳤으며,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7월부터 9월에는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회수한 설문지를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절차에 관한 내용과 일정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기간

순번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선행연구 및 고찰	2017년 11월 - 2018년 1월
2	연구주제 선정 및 논문수집	2018년 1월 - 2018년 2월
3	이론적 배경 연구	2018년 3월 - 2018년 5월
4	설문도구 1차 수정, 보완 및 예비조사	2018년 2월 - 2018년 6월
5	설문도구 2차 수정, 보완 및 설문조사 시행	2018년 7월 - 2018년 9월
6	교과서 분석 및 설문 분석에 대한 결과 정립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 3. 설문지 개발

#### 가. 설문지 제작절차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도구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 그리고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이며,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에 걸쳐 약 7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쳤다. 설문지는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영선의 연구<sup>21)</sup>와

21) 조영선(2012). 초,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이진아의 연구<sup>22)</sup>를 참고하여 적절한 예시문항을 수집하고,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 에 따라 1차 개발된 설문지 문항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제작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지 제작 절차에 관한 내용과 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제작절차

순번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참고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2	예시문항 수집	2018년 04월
3	1차 수정 및 보완	2018년 05월 - 2018년 06월
4	예비조사	2018년 07월
5	2차 수정 및 보완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 나. 예비조사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7곳을 직접 찾아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현직 재직 중인 음악교사 7인으로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고 설문지 문항 내용의 통일성 및 명료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확인받았다. A형 설문지에서 국악연수의 참여 횟수를 세분화 하였으며, 국악교육과 양악교육의 비중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B형 설문지에서 15문항과 17문항이 유사하여 한 가지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 다.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지는 국악연수를 받은 교사와 국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로 구분하여

22) 이진아(2009).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 명지대학교

A형과 B형으로 준비하였다. A형 설문지는 21문항, B형 설문지는 17문항으로 하였으며, 설문 내용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내용 구성

문항	영역	설문내용	문항
공통 문항	기초조사	성별	1
		교직 경력	2
		근무지	3
		전공	4
		교과서의 출판사	5
		국악연수 참여 유무	6
A 문항	음악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도 조사	양악과 국악수업의 비율	7
			8
		국악기, 국악이론 지도 능력	8-1
			9
		국악 지도 내용	10
		국악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의 필요사항	11
	국악 연수		12
		국악 연수 기회 및 참여횟수	13
			14
		국악 연수 주최 기관	15
			16
		국악 연수 효과	17
			18
		국악 연수의 바라는 점	19
	20		
국악교육 발전 과제	국악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21	
B 문항	음악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도 조사	양악과 국악수업의 비율	7
			8
		국악기, 국악이론 지도 능력	8-1
			9
		국악 지도 내용	10
		국악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의 필요사항	11
	국악 연수		12
			13
		국악 연수의 기회	14
			15
		국악 연수의 바라는 점	16
국악교육 발전 과제	국악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17	

## IV. 연구결과 및 분석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2종을 선정하여 분석하여 중, 고등학교 국악교육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내용 비교 분석, 음악교과서 악곡 분류 및 분석 순으로 구분하였다.

### 1. 중, 고등 음악교과서 국악 비중 분석

#### 가. 교과서 선정 및 분석 기준

교과서 선정은 선행연구<sup>23)</sup> 결과에 기초하여 국악영역에 비중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는 국악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중이 높은 교과서로 택한 것이다.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목차에 제시된 제재곡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둘째, 악보가 나와 있는 제재곡과 악보가 나오지 않은 감상 영역의 제재곡을 포함한다.

셋째, 정간보, 가사집도 분석에 포함한다.

넷째, 참고곡도 분석에 포함한다.

다섯째,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생활화영역 제재곡에 포함한다.

#### 나. 중, 고등 음악 교과서 분석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교과서의 국악 비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3) 변선호(2018).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국악 내용 연구

1) 교과서 분석

가) 국악의 구성 및 비중 분석

출판사별로 교과서의 국악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악곡의 수를 계수하였고, 이 중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 순서는 선행연구<sup>24)</sup> 중 국악비중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미래엔』, 『음악과 생활』 순으로 분석하였다.

(1) 중, 고등 음악교과서별 비중 분석

<표 5> 『미래엔』 음악교과서 국악의 비중

출판사		전체악곡	국악 곡 수	백분율(%)
미래엔	중학교 1	75	26	34.67
	중학교 2	78	29	37.17
	고등학교	133	39	29.32

<표 6> 『음악과 생활』 음악교과서 국악의 비중

출판사		전체악곡	국악 곡 수	백분율(%)
음악과 생활	중학교 1	65	24	36.92
	중학교 2	74	27	36.48
	고등학교	81	23	28.39

나) 내용 영역별 제재곡 분석

각 교과서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한 내용영역 체계에 따라 표현영역, 감상영역, 생활화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영역의 악곡을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국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현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신체표현으로 세분화 한 뒤 악곡을 정악, 민속악, 제례악, 창작국악으로 분류하였다. 단, 제례악과 종교음악은 의식음악에 포함하였으며, 국악동요·

24) 변선호(2018).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국악 내용 연구

퓨전국악·국악을 편곡한 악곡 등은 창작국악에 포함하였다.

(1) 중, 고등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제재곡 분석

내용 영역별로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제재곡을 분류하면 <표 7> ~ <표 12>과 같다.

<표 7>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1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정악	여창 가곡 우락	1	12	46.16
		민속악	태평가, 한오백년, 옹헤야, 강강술래, 몽금포타령, 이어도사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6		
		창작국악	아름다운 나라, 통일 비빔밥 만들기	2		
	기악	정악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1		
		창작국악	홀로아리랑	1		
감상	감상	정악	청성곡, 수룡음, 현악 영산회상, 수제천, 대취타	5	7	26.92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1		
		창작국악	관현악곡 '축제' 3악장	1		
생활화	생활화	민속악	판소리, 강강술래	2	7	26.92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1		
		창작국악	프론티어, 토끼 이야기, 소멸의 시간, 밀양아리랑	4		
합 계			26	100 %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 1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26곡이며, <표 7>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다양한 창작국악이 수록된 점을 알 수 있다. 표현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볼 수 있는 민속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감상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보기 어려운 정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

<표 8>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2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민속악	판소리 흥보가 중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 아리랑, 해주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통영 개타령	7	12	41.38
		창작국악	콩털이 사랑 콩	1		
	기악	민속악	사물놀이 중 별달거리, 날리리야, 아리랑	3		
	창작	민속악	통영 개타령	1		
감상	감상	정악	여민락, 관악 영산회상 중 삼현도드리, 평조회상 중 염불도드리	3	14	48.28
		민속악	농악, 시나위, 산조, 대풍류 중 굿거리, 신민요 아리랑	5		
		의식음악	범패 회심곡 중 부모은중경,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	2		
		창작국악	아리랑 환상곡, 오마주 투 코리아, 창작국악 관현악곡 방황,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4		
생활화	생활화	정악	가곡	1	3	10.34
		민속악	아리랑, 농악	2		
합 계			29	100%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 2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29곡이며, <표 8>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다양한 창작국악이 수록된 점을 알 수 있다.

다.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 1과 동일하게 표현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볼 수 있는 민속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감상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보기 다소 생소한 정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창작국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

<표 9> 『미래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정악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곡 초수대엽	2	21	53.85
		민속악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경북 궁타령, 진도아리랑, 몽금포타령, 쾌지나칭칭나네,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오돌또기, 줄꼬는 소리	9		
		창작국악	아름다운 나라	1		
	기악	정악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드리'	2		
		민속악	한강수타령, 민요 연곡, 아리랑 2중주, 닐리리야, 너영나영	5		
		창작	민속악 고사리깍자, 자진강강술래	2		
감상	감상	정악	가곡 편수대엽, 수제천, 대취타, 수룡음	4	12	30.77
		민속악	거문고 산조, 시나위	2		
		의식음악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 희문	2		
		창작국악	관현악 락락팔음, 관현악 남도아리랑, 소멸의 시간, 관현악 축제	4		
생활화	생활화	정악	대취타	1	6	15.38
		의식음악	범패 바깥채비소리 중 홑소리, 종묘제례악 중 전폐희문	2		
		창작음악	김백찬의 얼씨구야, 한층은의 아나라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ost 무이이야	3		
합 계			39	100 %		

『미래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39곡이며, <표 9>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다양한 창작국악이 수록된 점을 알 수 있다. 표현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볼 수 있는 민속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감상영역은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국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또한 생활화영역은 민속악이 아닌 정악, 의식음악, 창작국악으로 구성하였다.

<표 10> 『음악과 생활』 중학교1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정악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1	10	41.66
		민속악	널리리야,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자진 쾌지나칭칭나네, 너영나영, 자진강강술래, 웅혜야, 싸름	7		
	기악	민속악	천안삼거리	1		
	창작	민속악	자진방아타령	1		
감상	감상	정악	여민락	1	12	50
		민속악	산조, 수심가, 방아타령, 진도 아리랑, 신고산타령, 한오백년, 오돌또기	7		
		창작 국악	침향무, 신뎃놀이, 프론티어, 소멸의 시간	4		
생활화	생활화	민속악	강강술래	1	1	4.17
참고곡		민속악	뱃노래	1	1	4.17
합 계			24	100 %		

『음악과 생활』 중학교 음악교과서1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24곡이며, <표 10>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다양한 창작국악이 수록된 점을 알 수 있다. 표현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볼 수 있는 민속악 위주로 구성하

였으며, 그 외에 시조도 편성하였다. 그리고 감상영역은 민속악과 창작국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화영역에서 강강술래 놀이의 의미를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11> 『음악과 생활』 중학교2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민속악 한강수타령, 오돌또기,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군밤타령, 진도아리랑, 몽금포타령	6	11	40.74
		창작국악 캔디타령, 산도깨비	2		
	기악	민속악 새야새야, 태평가, 사물놀이 중 영남농악 별달거리	3		
감상	감상	정악 수제천, 대취타, 관악보허자, 여민락, 영산회상	5	8	29.63
		민속악 멀치 후리는 소리, 시나위	2		
		창작국악 가야금 협주곡 제1번	1		
생활화	생활화	정악 가곡	1	7	25.93
		민속악 농악, 아리랑, 강강술래, 판소리	4		
		의식음악 범패 중 영산재, 종묘제례악	2		
참고곡	민속악	강원도 아리랑	1	1	3.70
합 계			27	100 %	

『음악과 생활』 중학교 음악교과서2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27곡이며, <표 11>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다양한 창작국악이 수록된 점을 알 수 있다. 표현영역은 학생들이 활동해볼 수 있는 민속악과 창작음악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감상영역은 정악과 민속악 그리고 창작국악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표 12>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내용 영역별 국악곡 분류

영역	분류	곡명	곡 수	영역별 곡수	비율 (%)	
표현	가창	정악	가곡 연락	1	12	52.17
		민속악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새 타령, 경북궁타령, 정선아리랑, 쾌지나칭칭나네, 수심가와 엮음 수심가, 이어도사나	6		
	기악	민속악	사물놀이 중 영남가락 길군악	1		
		창작 국악	홀로아리랑, 소리길, 아리랑, 꽃이 피었네	4		
감상	감상	정악	수제천, 관악보허자	2	5	21.74
		민속악	가야금 산조	1		
	의식 음악	종묘제례악	1			
	창작 국악	송광복	1			
생활화	생활화	정악	가곡	1	6	26.09
		민속악	농악, 강강술래, 아리랑, 판소리	4		
		의식 음악	종묘제례악	1		
합 계			23	100 %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곡은 총 23곡으로 <표 12>과 같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국악이 수록 되었다. 다양한 악곡들을 볼 수 있으나, 표현영역에 활동이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라) 출판사별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종합분석

중학교 음악교과서 1, 2권과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제재곡 분류에 의한

종합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재곡은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국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정악은 기악과 성악, 민속악은 지역별 민요로 세분화하였다.

(1) 『미래엔』의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종합분석

『미래엔』의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나는 제재곡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표 13> 과 같다.

<표 13> 『미래엔』의 중, 고등 음악교과서 종합 분석

분류		중학교1 음악교과서	중학교2 음악교과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정악	기악	청성곡, 수룡음, 현악 영산회상, 수제천, 대취타	여민락, 관악 영산회상 중 삼현도드리, 평조회상 중 엽불도드리	수제천, 대취타, 수룡음
	성악	여창 가곡 우락,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곡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곡 초수대엽,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드리', 가곡 편수대엽
민속악	경기 민요	태평가	아리랑, 늘리리아	경북궁타령, 한강수타령, 아리랑 2중주, 늘리리아
	서도 민요	몽금포타령	해주아리랑	몽금포타령
	동부 민요	한오백년, 옹헤야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통영 개타령	괘지나칭칭나네,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남도 민요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줄꼬는 소리
	제주 민요	이여도사나	X	오돌또기, 너영나영

	그 외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판소리 흥보가 중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 사물놀이 중 별달거리, 농악, 시나위, 산조, 대풍류 중 굿거리, 신민요 아리랑, 농악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민요 연곡, 거문고 산조, 시나위
의식음악	제례악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 '희문', '전폐희문'
	종교음악		범패 회심곡 중 '부모은중경'	범패 바깥채비소리 중 '훗소리'
	창작국악	아름다운 나라, 통일비빔밥 만들기, 홀로 아리랑, 관현악 '축제' 3악장, 프론티어, 토끼 이야기, 소멸의 시간, 밀양아리랑	콩털이 사랑 콩, 아리랑 환상곡, 오마주 투코리아, 관현악곡 '방황',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아름다운 나라, 관현악 '락락팔음', 관현악 '남도 아리랑', 소멸의 시간, 관현악 '축제', 김백찬의 '얼씨구야', 한충은의 '아니라오', 육룡이 나르샤ost '무이이야'

『미래엔』 교과서의 정악 중 기악 제재곡은 중학교 1 교과서에 비해 중학교 2 교과서에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악 중 성악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폭 넓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속악 중 민요는 중학교 1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역별 민요를 고루 다루고 있으나, 중학교 2 교과서에서 제주민요를 다루지 않고 민요 외의 판소리, 농악, 산조, 시나위 등의 제재곡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례악은 중학교 1 교과서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범패는 중학교 2 교과서부터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창작국악도 대체적으로 겹치지 않고 다양한 제재곡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음악과 생활』의 중, 고등 음악교과서 종합분석

『음악과 생활』의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나는 제재곡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표 14> 와 같다.

<표 14> 『음악과 생활』의 중, 고등 음악교과서 종합 분석

분류		중학교1 음악교과서	중학교2 음악교과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정악	기악	여민락	수제천, 대취타, 관악보허자, 여민락, 영산회상	수제천, 관악보허자	
	성악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곡	가곡 언락	
민속악	민요	경기 민요	널리리아, 천안삼거리, 자진방아타령, 방아타령, 뱃노래	경북궁타령, 아리랑	
		서도 민요	싸름, 수심가	몽금포타령	수심가와 엮음수심가,
		동부 민요	자진 쾌지나칭칭나네, 옹혜야, 신고산타령,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정선아리랑, 쾌지나칭칭나네,
		남도 민요	자진강강술래,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새타령, 강강술래
		제주 민요	너영나영, 오돌또기	오돌또기, 멀치 후리는 소리	이어도사나
		그 외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산조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새야새야, 사물놀이 중 영남농악 별달거리, 시나위	판소리 춘향가 중 숙대머리, 사물놀이 중 영남가락 길군악, 가야금산조
	의식음악	제례악		중요제례악	중요제례악
종교음악			범패 중 영산재		
창작국악		침향무, 신뱃놀이, 프론티어, 소멸의 시간	캔디타령, 산도깨비, 가야금 협주곡 제1번	홀로아리랑, 소리길, 아리랑, 꽃이 피었네, 송광복	

『음악과 생활』 중학교 2 음악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정악의 제재곡을 다루고 있으며, 민속악 중 민요는 모든 교과서에서 지역별 민요를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판소리는 춘향가와 흥보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판소리 이외에도 산조, 농악, 시나위 등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례악은 종묘제례악만을 볼 수 있으며 창작국악은 각 교과서마다 3-4곡으로 구성되었다.

다) 출판사별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기

『미래엔』 과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기의 종류는 <표 15>과 같다.

<표 15> 출판사별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기

국악기	『미래엔』		『음악과 생활』	
	중학교1,2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1,2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장구	○	○	○	○
단소	○	○	○	○
소금	○	○	○	○
사물놀이	○	○		○
산조 가야금	○			○

## 2. 국악교육 실태조사 분석

실태조사는 국악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A형 설문지와 국악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B형 설문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도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별, 교육경력, 대학전공, 국악수업의 만족도, 국악 연수 참여 여부의 비율은 <표 16>, <표 17>과 같다.

1) A형 설문지

<표 16> A형 설문지 : 기초조사

구분	집단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	1	6.25	16
	여	15	93.75	
교육경력별	5년 이하	2	12.5	16
	6년-10년	6	37.5	
	11년-20년	6	37.5	
	21년 이상	2	12.5	
대학전공별	양악	16	100	16
	국악	0	0	
국악수업의 만족도	만족	3	18.75	16
	불만족	13	81.25	
국악연수 참여 유무	예	16	100	16
	아니오	0	0	

2) B형 설문지

<표 17> B형 설문지 : 기초조사

구분	집단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	5	20.83	24
	여	19	79.17	
교육경력별	5년 이하	9	37.5	24
	6년-10년	6	25	
	11년-20년	6	25	
	21년 이상	3	12.5	
대학전공별	양악	24	100	24
	국악	0	0	
국악수업의 만족도	만족	5	20.83	24
	불만족	19	79.17	
국악연수 참여 유무	예	0	0	24
	아니오	24	100	

일반 교육 연수인 A연수에 참여한 음악교사들 중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40명이며, 국악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6명, 국악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교사는 24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양악 전공이며, 국악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나. A형 설문지 분석

1) 음악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도 조사

<표 18> A형 설문지 :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양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	8	50
② 국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	0	0
③ 양악수업 또는 국악수업만 한다.	0	0
④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이 동등하다.	8	50

음악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에 대한 설문에 ‘양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가 8명(50%),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이 동등하다’가 8명(50%)으로 나타났다.

<표 19> A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1	6.25
② 어려움을 느낀다.	8	50
③ 보통이다.	7	43.75
④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0	0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8명(50%), ‘보통이다’가 7명(43.75%),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가 1명(6.25%)

으로 나타났다.

<표 20> A형 설문지 :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부족	2	12.5
② 현장의 국악교육 환경 미확보	3	18.75
③ 국악 지도 내용의 다양성	6	37.5
④ 기타	2	12.5
미응답	3	18.75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국악 지도 내용의 다양성’이 6명(37.5%), ‘현장의 국악교육 환경 미확보’가 3명(18.75%),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부족’이 2명(12.5%), 기타가 2명(12.5%)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이 3명(18.75%)이다. 기타로는 ‘재미있는 국악으로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업계획의 어려움’과 ‘학생의 흥미도가 낮아 진행하기 어려움’의 의견이었다.

<표 21> A형 설문지 : 다룰 줄 아는 국악기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장구	15	42.8
② 단소	15	42.8
③ 가야금	2	5.8
④ 기타	3	8.6

자신이 다룰 줄 아는 국악기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명의 교사는 일반적으로 2개를 중복 표시하였다. 다룰 수 있는 국악기는 ‘장구’ 15명(42.8%), ‘단소’ 15명(42.8%), ‘가야금’은 2명(5.8%), ‘기타’가 3명(8.6%)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은 ‘소금’이 2명(5.8%), ‘대금’이 1명(2.8%)으로 나타났다.

<표 22> A형 설문지 : 국악지도의 내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교과서 내용만 지도한다.	5	31.3
②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	3	18.7
③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	5	31.3
④ 기타	3	18.7

교사가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국악의 내용에 대한 설문에서 ‘교과서 내용만 지도한다.’와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가 각 5명(31.3%),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와 기타의견이 각 3명(18.7%)으로 기타는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 밖의 내용을 함께 지도한다’는 3명(18.7%)의 의견이 나타났다.

<표 23> A형 설문지 :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정도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	1	5.6
②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13	72.2
③ 국악을 위주로 해야 한다.	3	16.6
④ 기타	1	5.6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가 13명(72.2%), ‘국악을 위주로 해야 한다’가 3명(16.6%),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가 1명(5.6%), ‘기타’가 1명(5.6%)로 기타는 ‘학교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24> A형 설문지 :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	12	75
② 다양한 국악기 비치	1	6.3
③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3	18.7
④ 기타	0	0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에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가 12명(75%),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이 3명(18.7%), ‘다양한 국악기 비치’가 1명(6.3%)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국악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음악 교사의 국악 연수에 대한 조사

<표 25> A형 설문지 :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부족하다.	12	75
② 적절하다.	2	12.5
③ 충분하다.	0	0
④ 기타	2	12.5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에 대한 설문에 ‘부족하다’가 12명(75%), ‘적절하다’와 ‘기타’가 각 2명(12.5%)로 기타는 ‘기회는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움’과 ‘배울 기회가 다양하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음’의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져도 학생 지도 및 여러 업무로 인해 다양한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표 26>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받은 횟수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1회-3회	12	75
② 4회-6회	0	0
③ 7회-9회	3	18.75
④ 10회 이상	1	6.25

국악 연수를 받은 횟수에 대한 설문에서 ‘1회-3회’가 12명(75%), ‘7회-9회’가 3명(18.75%), ‘10회 이상’이 1명(6.25%)로 나타났다. 다수의 교사들의 국악 연수 참여 횟수가 1회-3회인 설문 결과를 통해 다양한 국악 연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27>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주최한 기관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국립국악원	11	42.3
② 지역 풍물교육연구회	0	0
③ 지역 음악교과교육연구회	8	30.8
④ 지역 전통타악교육연구회	3	11.5
⑤ 지역 사물놀이교육연구회	0	0
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	0
⑦ 우리가락교육연구회	0	0
⑧ 기타	4	15.4

국악 연수를 주최한 기관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립국악원’이 11명(42.3%), ‘지역 음악교과교육연구회’가 8명(30.8%), ‘기타’가 4명(15.4%), ‘지역 전통타악교육연구회’가 3명(11.5%)으로 기타는 ‘지역 문화 예술연수원’, ‘대학교 내 연수프로그램’, ‘일정 연수 부산대학교’, ‘국립 남도 국악원’으로 나타났다.

<표 28>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만족	6	37.5
② 보통	10	62.5
③ 불만족	0	0
④ 기타	0	0

국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설문에 ‘보통’이 10명(62.5%), ‘만족’이 6명(37.5%)으로 나타났다.

<표 29>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참여한 뒤 달라진 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국악 이론 등의 지식 함양	4	25
② 국악 지도할 때, 자신감의 향상	7	43.7
③ 실기 능력 향상	5	31.3
④ 기타	0	0

국악 연수를 참여한 뒤 달라진 점에 대한 설문에 ‘국악 지도할 때, 자신감 향상’이 7명(43.7%), ‘실기 능력 향상’이 5명(31.3%), ‘국악 이론 등의 지식 함양’이 4명(25%)으로 나타났다.

<표 30>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기본적인 것들이다.	6	33.3
② 교육 내용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하기 어렵다.	10	55.5
③ 연수 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1	5.6
④ 기타	1	5.6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하기 어렵다’가 10명

(55.5%),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기본적인 것들이다’가 6명(33.3%), ‘연수 받을 때마다 교육내용이 연계되지 않는다’가 1명(5.6%), ‘기타’가 1명(5.6%)로 기타는 ‘실기 위주의 연수를 원함’의 의견이었다.

<표 31> A형 설문지 :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국악개론	3	4.1
② 한국음악사	1	1.4
③ 국악기 이해	5	6.8
④ 국악교육론	1	1.4
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	13	17.9
⑥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3	4.1
⑦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	6	8.2
⑧ 국악 가창	9	12.3
⑨ 국악 기악	12	16.5
⑩ 국악 창작	8	10.9
⑪ 국악 감상	6	8.2
⑫ 작품발표회	3	4.1
⑬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3	4.1

국악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이 13명(17.9%), ‘국악 기악’과 ‘국악 창작’이 12명(16.5%), ‘국악 가창’이 9명(12.3%),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과 ‘국악 감상’이 6명(8.2%), ‘국악기 이해’가 5명(6.8%), ‘국악개론’과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작품발표회’,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각 3명(4.1%), ‘한국음악사’와 ‘국악교육론’이 각 1명(1.4%),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두루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A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5	14.3
②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8	22.9
③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11	31.4
④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	8	22.8
⑤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	3	8.6
⑥ 기타	0	0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11명(31.4%),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과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이 8명(22.8%),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이 5명(14.3%),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이 3명(8.7%)로 나타났다.

### 3) 국악교육 발전 과제

<표 33> A형 설문지 :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응답	10	62.5
미응답	6	37.5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이 10명(62.5%), 미응답이 6명(37.5%)로 나타났다. 응답해준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4> A형 설문지 : 국악교육 발전 과제에 관한 교사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 전공 교사 방문 추진</li> <li>·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함</li> <li>· 국악에 관심을 갖기</li> <li>· 다양한 경험을 하는 연수에 참여해야겠다.</li> <li>· 국악수업 연구</li> <li>· 교사자신이 국악을 사랑하고 수업해야함, 정성을 드린 수업으로 학생들도 국악을 사랑할 수 있도록!</li> <li>· 많은 연수를 듣고 수련을 해야 합니다.</li> <li>· 꾸준한 관심과 개인적 역량 강화</li> <li>· 국악에 대한 관심과 축을 항상 유지한다. 공연관람, tv에서 국악프로그램 시청, 라디오 프로그램 등 선편표를 보고 다양한 국악곡을 듣고 수업 시 활용해야함</li> <li>·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교과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li> </ul>
--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으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사가 열정을 갖고 먼저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 B형 설문지 분석

1) 음악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도 조사

<표 35> B형 설문지 :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양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	19	79.2
② 국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	1	4.2
③ 양악수업 또는 국악수업만 한다.	0	0
④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이 동등하다.	4	16.6

음악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에 대한 설문에 ‘양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가 19명(79.2%),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이 동등하다’가 4명(16.6%), ‘국악수업의 비율이 더 크다’가 1명(4.2%)으로 나타났다.

<표 36> B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3	12.5
② 어려움을 느낀다.	8	33.3
③ 보통이다.	11	45.8
④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	8.4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가 11명(45.8%), ‘어려움을 느낀다’가 8명(33.3%),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가 3명(12.5%),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가 2명(8.4%)으로 나타났다.

<표 37> B형 설문지 :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부족	4	16.7
② 현장의 국악교육 환경 미확보	11	45.8
③ 국악 지도 내용의 다양성	4	16.7
④ 기타	4	16.7
미응답	1	4.1

국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에 대한 설문에 ‘현장의 국악교육 환경 미확보’가 11명(45.9%),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 부족’가 4명(16.7%), ‘국악 지도 내용의 다양성’가 4명(16.7%), 기타가 4명(16.7%)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은 1명(4.1%)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아이들의 흥미 부족’의 의견 2명(8.35%)과 ‘임용 고시를 준비할 때 국악이론 및 실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거부감’의 의견이었다.

<표 38> B형 설문지 : 다룰 줄 아는 국악기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장구	21	38.2
② 단소	24	43.6
③ 가야금	7	12.7
④ 기타	3	5.5

교사 자신이 다룰 줄 아는 국악기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 명의 교사는 일반적으로 2개를 중복 표시하였다. 교사가 다룰 수 있는 국악기는 ‘단소’ 24명(43.6%), ‘장구’ 21명(38.2%), ‘가야금’은 7명(12.7%), ‘기타’가 3명(5.4%)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은 ‘해금’이 2명(3.6%), ‘사물놀이’가 1명(1.8%)으로 나타났다.

<표 39> B형 설문지 : 국악지도 내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교과서 내용만 지도한다.	9	37.5
②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	7	29.17
③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	7	29.17
④ 기타	1	4.16

교사가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국악의 내용에 대한 설문에 ‘교과서 내용만 지도한다.’가 9명(37.5%),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와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가 각 7명(29.2%), 기타의견이 1명(4.16%)으로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 밖의 내용을 함께 지도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40> B형 설문지 :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	5	20.8
②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18	75
③ 국악을 위주로 해야 한다.	0	0
④ 기타	1	4.2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에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가 18명(75%),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가 5명(20.8%), ‘기타’가 1명(4.2%)로 기타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41> B형 설문지 :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	17	70.8
② 다양한 국악기 비치	5	20.8
③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2	8.4
④ 기타	0	0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에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가 17명(70.8%), ‘다양한 국악기 비치’가 5명(20.8%),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이 2명(8.4%)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국악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음악 교사의 국악 연수에 대한 조사

<표 42> B형 설문지 : 현재 선생님들께 주어지는 국악 연수 기회에 대한 생각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부족하다.	18	75
② 적절하다.	5	20.8
③ 충분하다.	0	0
④ 기타	1	4.2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악 연수의 기회에 대한 설문에 ‘부족하다’가 18명(75%), ‘적절하다’가 5명(20.8%), ‘기타’가 각 1명(4.2%)로 기타 의견은 ‘기회는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설문지와 동일하게 국악 연수의 기회가 주어져도 학생 지도 및 여러 업무로 인해 다양한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표 43> B형 설문지 :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연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3	54.2
② 방학 기간에만 이루어져서	2	8.3
③ 국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3	12.5
④ 기타	6	25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에 ‘연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13명(54.2%), ‘기타’가 6명(25%), ‘국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가 3명(12.5%), ‘방학 기간에만 이루어져서’가 2명(8.3%)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부족’이 2명(8.3%) ‘신규라서 아직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육아로 인하여’, ‘연수시기, 장소 등 복합적인 문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나타났다.

<표 44> B형 설문지 :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7	12.7
②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14	25.4
③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17	30.9
④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	14	25.5
⑤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	3	5.5
⑥ 기타	0	0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17명(30.9%),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과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14명(25.4%),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이 7명(12.7%),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이 3명(5.6%)로 나타났다.

<표 45> B형 설문지 :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목	응답자 수	비율(%)
① 국악개론	4	4.3
② 한국음악사	4	4.3
③ 국악기 이해	7	7.4
④ 국악교육론	2	2.1

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	15	15.9
⑥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9	9.6
⑦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	13	13.8
⑧ 국악 가창	8	8.5
⑨ 국악 기악	12	12.8
⑩ 국악 창작	6	6.4
⑪ 국악 감상	6	6.4
⑫ 작품발표회	2	2.1
⑬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6	6.4

국악 연수를 받을 때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문에는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이 15명(15.9%), ‘소프트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이 13명(13.8%), ‘국악 기악’이 12명(12.8%),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가 9명(9.6%), ‘국악 가창’이 8명(8.5%), ‘국악기 이해’가 7명(7.4%), 국악 창작’과 ‘국악 감상’,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각 6명(6.4%), ‘국악개론’과 ‘한국음악사’가 각 4명(4.3%), ‘국악교육론’과 ‘작품발표회’가 2명(2.1%),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악교수법, 컴퓨터 활용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악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국악교육 발전 과제

<표 46> B형 설문지 :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응답	19	79.2
미응답	5	20.8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 교사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이 19명(79.2%), 미응답이 5명(20.8%)로 나타났다. 응답해준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B형 설문지 : 국악교육 발전 과제에 관한 교사 응답

-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악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함
- 국악연수를 통한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야할 것 같음
- 다양한 국악수업을 위한 연구 등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함
- 동등한 비중으로 양악, 국악교육을 해야함
- 양악과 국악에 대한 관심을 동등한 비율로 해야함
- 국악교육에 대해 열정을 지녀야 함
- 연수, 방법론 연구
- 국악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실제적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됨
-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교수방법을 연구해야할 것 같음
- 역량강화,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해 삶과 국악을 연관짓는 방법 개발, 학교 여건 확보
- 국악은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동기 부여
- 국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관심, 양악과의 동등한 비율, 문화정체성 확립
-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저경력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가 있었으면 함
- 국악 조기 교육 필요, 악기개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음 (단소정도 외엔)
- 전통국악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서 대중적인 국악이 필요함
-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자질 향상
- 국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A형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열정을 갖고 먼저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 3. 요약 및 논의

#### 가. 교과서 분석

이 연구의 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른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국악영역 비중 『미래엔』 중학교 1이 34.67%, 중학교 2가 37.17%, 고등학교가 29.32%이며, 『음악과 생활』은 중학교 1이 36.92%, 중학교 2가 36.48%, 고등학교가 28.39%의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1의 표현영역은 민속악, 감상영역은 정악, 생활화영역은 창작국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미래엔』 중학교 음악교과서2의 표현영역은 민속악, 감상영역은 창작국악, 생활화영역은 민속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표현영역은 민속악, 감상영역은 정악, 생활화는 의식음악과 창작음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음악과 생활』 중학교 음악교과서1의 표현, 감상, 생활화영역과 참고곡 모두 민속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음악과 생활』 중학교 음악교과서2의 표현영역은 민속악, 감상영역은 정악, 생활화는 민속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과 생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표현영역과 생활화영역은 민속악, 감상영역은 정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즉,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 활동하는데 용이한 제재곡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출판사 별로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음악에 다양한 제재곡을 구성하여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의 동일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31곡,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10곡으로 동일한 제재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학교의 음악교과서와 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의 출판사를 다르게 선정하여 지도할 경우 연계성이 떨어져 중학교에서 습득하는 음악지식과 고등학교에서 습득하는 음악지식이 단편적으로 학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여준다.

#### 나. 설문 분석

첫째, A연수에 참여한 전국의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전공 분야를 파악한 결과 모두 양악으로 도출되었다. 음악 수업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A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모두 양악전공이라는 것은 다수의 음악교사들이 국악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 활동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어있지 않다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둘째, 설문에 참여한 40명의 음악교사들 중 국악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16명으로 40%의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양악을 전공하여 국악에 대한 정보와 수업 방안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연수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도 경력과 관계없이 대부분 1-3번의 국악연수에 참여하였다는 분석을 통해 연수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악교육과 다양한 융합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명 중 31명(77.5%)의 교사가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교육해야한다고 응답하며 국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에 대한 응답에서는 40명 중 27명(67.5%)의 교사가 국악수업보다 양악수업에 더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국악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보다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국악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

고 이전에 해왔던 동일한 교육을 하여 다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수업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결과로 연결 될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이 연구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 그리고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국악교육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A연수에 참여한 40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총 40부의 설문지를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에 따라 백분율로 계산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 고등학교 『미래엔』,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국악비중은 『미래엔』 중학교 1이 34.67%, 중학교 2가 37.17%, 고등학교가 29.32%이며, 『음악과 생활』 중학교 1이 36.92%, 중학교 2가 36.48%, 고등학교가 28.39%의 비중을 차지한다. 두 교과서의 국악 비중을 종합하여 볼 때 중학교 교과서는 약 36% 정도, 고등학교 교과서는 약 28% 정도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 시기에 교과서 내 국악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업 내용 중 양악수업과 국악수업의 비율에 대한 응답에서는 교사 40명 중 27명(67.5%)이 국악보다 양악을 더 높은 비율로 수업한다는 결과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도 수업 내용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악 수업 지도능력의 만족도는 40명 중 24명(60%)이 불만족하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현장에서 국악수업에 불만족하는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도 충분한 국악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명 중 31명(77.5%)의 교사가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교육해야한다

고 응답하여 국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동일한 비율로 교육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악 연수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16명의 교사 중 연수의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현장에 바로 접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가 10명(55%)으로 나타나 국악 연수가 국악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와 연결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교육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교육현장에 접목되기 어렵고, 교육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많아 연계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다.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국악 내용을 살펴보면 정악, 민속악, 의식음악, 창작국악 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지도해야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에 비해 연수는 한정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설문에 참여한 음악교사 중 국악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40%이며, 교육경력에 구분 없이 최대 1-3번 정도 참여하여 연수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악연수가 학교교육 현장에 바로 접목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더불어 연수의 참여도도 낮아 국악수업의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는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산조 가야금으로 제시되어있으나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악기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도가 가능한 악기는 대부분 장구, 단소가 84%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그 외의 가야금 22.5%, 해금 2%, 소금 2%, 대금 1%, 사물놀이 1%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 중 실질적으로 지도되는 데에는 학교의 악기 구비 역량 뿐 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악기의 연수가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교사들 간의 소통이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음악수업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리되어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교사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가르치는 음악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국악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국악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의 제일 많은 이유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문을 통해 산출되었다. 이는 교수 자료의 부족, 악기 시설의 부재, 열악한 교육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을 때 이전보다 국악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셋째, 국악연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악연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현장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어 정리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악연수를 진행하기 전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파악하여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어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국악의 다양한 수업을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직교사들을 위한 연수의 홍보가 필요하다. 보통 음악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현 시점에 음악교사들의 국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국악 연수의 참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한다. 『미래엔』과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는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산조 가야금으로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교

사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한 국악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국악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악 연수의 실태와 활용성, 그리고 현 교육현장의 국악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현직 음악교사들에게 국악연수의 활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언을 토대로 앞으로 교사들은 국악연수에 활발히 참여하여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에 매진하여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권덕원 외(2009). 국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권덕원 외(2017).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김미숙 외(2016). 음악과 교재연구. 서울: 학지사.
-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 민경훈 외(2010). 음악교육학총론. 서울: 학지사.
- 최은식 외(2014). 음악교육연구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 한혜정 외(2016).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허영한 외 6인,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III. 서울: 도서출판 심설당, 2009.
- 홍정수 외 3인, 『두길 서양음악사』 I. 경기: (주)나남, 1997.

### 2. 학술지

- 김민하(2016).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 나타난 국악 교수·학습의 특징, 10(2), 5-31
- 김영주(2015).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소통이 있는 국악수업 방안 모색 - 일노래 지도를 중심으로, 9(1), 265-282.
- 김정림(2014).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민속기악 감상곡 내용 분석, 8(2), 5-26
- 김희숙(2012). “한국음악교육학회-음악교육연구”,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내용의 적합성 분석- 교사의 국악내용 이해 실태를 중심으로-, 41(3), 93-108.
- 성기련(2016).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국악교육의 방향 모색, 10(1), 69-98.
- 이지예(2016). “한국음악교육학회-음악교육연구”, 국악교육 분야의 최근 연

- 구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45(1), 45-65.
- 장지영(2017).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가무악 통합 활동을 통한 전래동요 지도방안, 11(1), 247-265.
- 한윤이(2014).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국악교육연구”, 국악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8(1), 245-280.
- 허선형(2013). “한국국악학회-한국음악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가곡(歌曲) 지도내용 고찰, 54, 415-451.
- 현경실(2015). “한국음악교육학회-음악교육연구”,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내용의 변천 연구 - 감상, 이해, 기악을 중심으로, 44(4), 283-303.

### 3. 학위 논문

- 변선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국악 내용 연구. 상명대학교
- 서민정(2017). 중등 음악교사 양성기관의 국악교육 역량 제고 방안. 단국대학교
- 오미선(2010).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 이지예(2017).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연계성 분석. 건국대학교
- 이지은(2017).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에 관한 국악 지도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이지현(2008).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 이진아(2008). 중등 국악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서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명지대학교

임유정(2016).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실태 및 인식 조사 :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선(2012). 초, 중등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한예슬(20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 생활화영역 中 국악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4. 교과서

양종모 외(2018), 중학교 음악 1, 2. 서울: 음악과 생활

양종모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음악과 생활

장기범 외(2018), 중학교 음악 1, 2. 서울: 미래엔

장기범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미래엔

# ABSTRACT

Status of taking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according with 2015 revised curriculum.

Im, Ju-Eu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ways to expand the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practica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t the current education field.

For this research, the import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pieces out of the total musical pieces included in the music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published by 『miraen』 and 『Music & Life』, which are 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addition, the status of current education field and the practica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raining programs were analyzed by the survey carried out of 40 middle and high school music teacher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se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re as below:

First, for the import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pieces included in those music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published by 『miraen』 and 『Music & Life』 which are 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t accounts for 34.67% in the Middle School 1, 37.17% in the Middle School 2 and 29.32% in the High School from 『miraen』, while it accounts for 36.92% in the Middle School 1, 36.48% in the Middle School 2 and 28.39% in the High School from 『Music & Life』.

Second, for the answers about the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o western music in the contents of class, 27 out of 40 (67.5%) answered that they teach western music more tha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for the answers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ir teaching capabi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24 out of 40 (60%) answered that they are not satisfied.

Third, the answers to the survey on teachers'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was analyz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31 out of 40 (77.5%) teachers answered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should be taught at the same proportion as the one of western music.

Fourth, 10 out of 16 teachers (55%) who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raining programs answer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graft the training programs directly on to the school education field, which shows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training programs do not have great

effect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eachers, in general, recognized the necess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herefor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various programs are required through constant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 ②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 ( )
- ③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 ( )
- ④ 기타 \_\_\_\_\_

11. 음악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하나?

- ①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 ( )
- ②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 )
- ③ 국악을 위주로 해야 한다. ( )
- ④ 기타 \_\_\_\_\_

12.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 ①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 ( )    ② 다양한 국악기 비치 ( )
- ③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 )    ④ 기타 \_\_\_\_\_

13. 현재 선생님들께 주어지는 국악 연수 기회에 대한 생각은?

- ① 부족하다. ( )            ② 적절하다. ( )
- ③ 충분하다. ( )            ④ 기타 \_\_\_\_\_

14. 국악 연수를 받은 횟수는?

- ① 1회-3회 ( )            ② 4회-6회 ( )
- ③ 7회-9회 ( )            ④ 10회 이상 ( )

15. 국악 연수를 주최한 기관은?

- ①국립국악원 ( )    ②지역 풍물교육연구회 ( )
- ③지역 음악교과교육연구회( )    ④지역 전통타악교육연구회( )
- ⑤지역 사물놀이교육연구회( )    ⑥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 ⑦우리가락교육연구회 ( )    ⑧기타 \_\_\_\_\_

16.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만족( )    ② 보통( )  
 ③ 불만족( )    ④ 기타( )\_\_\_\_\_

17. 국악 연수 참여 후 달라진 점은?

- ① 국악 이론 등의 지식 함양 ( )  
 ② 국악 지도할 때, 자신감의 향상 ( )  
 ③ 실기 능력 향상 ( )  
 ④ 기타 ( )\_\_\_\_\_

18.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은? (중복표시 가능)

- ①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기본적인 것들이다. ( )  
 ② 교육 내용이 전문적이고 현장에 접목하기 어렵다. ( )  
 ③ 연수 받을 때 마다 교육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 )  
 ④ 기타 ( )\_\_\_\_\_

19. 연수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의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응답 가능)

영역	내용	표시란
국악 이론	1) 국악개론	
	2) 한국음악사	
	3) 국악기 이해	
국악 교육	1) 국악교육론	
	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	
	3)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4) 소프트 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	
국악 실기	1) 국악 가창	
	2) 국악 기악	
	3) 국악 창작	
	4) 국악 감상	
기타	1) 작품발표회	

	2)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그 외의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20.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은? (중복 응답 가능)

- ①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 )
- ②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 )
- ③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 )
- ④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 ( )
- ⑤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 ( )
- ⑥ 기타( ) \_\_\_\_\_

21.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교사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기술해주시요.

( )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0. 국악 지도 내용은?

- ① 교과서 내용만 지도한다. ( )
- ② 교과서 내용 중 아는 부분만 지도한다. ( )
- ③ 교과서 내용 밖의 자료로 지도한다. ( )
- ④ 기타 ( ) \_\_\_\_\_

11. 음악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하나?

- ① 양악을 위주로 수업하고 국악은 조금만 해도 된다. ( )
- ② 양악과 국악을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 )
- ③ 국악을 위주로 해야 한다. ( )
- ④ 기타 ( ) \_\_\_\_\_

12. 교사의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 ① 지속적인 국악 연수 실시 ( )
- ② 다양한 국악기 비치 ( )
- ③ 국악 전공 교사의 방문 교육 ( )
- ④ 기타 ( ) \_\_\_\_\_

13. 현재 선생님들께 주어지는 국악 연수 기회에 대한 생각은?

- ① 부족하다. ( )      ② 적절하다. ( )
- ③ 충분하다. ( )      ④ 기타 ( ) \_\_\_\_\_

14. 국악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 ① 연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
- ② 방학 기간에만 이루어져서 ( )
- ③ 국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 )
- ④ 기타 ( ) \_\_\_\_\_

15. 국악 연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은? (중복 응답 가능)

- ① 전문적인 연주 실력과 국악교육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역량 ( )
- ② 적절한 연수 인원을 확보하여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 )
- ③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 )
- ④ 국악 전반(실기, 가창, 국악이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 ( )
- ⑤ 연수비용의 무료 혜택 ( )
- ⑥ 기타( ) \_\_\_\_\_

16. 연수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의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응답 가능)

영역	내용	표시란
국악 이론	1) 국악개론	
	2) 한국음악사	
	3) 국악기 이해	
국악 교육	1) 국악교육론	
	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법 등의 국악교수법	
	3) 국악 교재 및 교구의 연구	
	4) 소프트 웨어 및 ICT를 활용한 국악 컴퓨터 교육방법론	
국악 실기	1) 국악 가창	
	2) 국악 기악	
	3) 국악 창작	
	4) 국악 감상	
기타	1) 작품발표회	
	2) 국악교육 우수사례 발표	
	그 외의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17.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직교사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기술해주시십시오.

( )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